

2024. 2. 21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2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식품정책과장

양광숙

2133-4700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2쪽

축산물안전팀장

양윤모

2133-4722

### 서울시, 설 성수기에 '한우 거짓표시' 등 점검 18개 업소 적발

- 마장동 등 밀집지역, 백화점·대형마트,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117곳 점검
- 1.22.~2.6. 점검...부위명·이력번호 거짓표시,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등 18건 적발
- 한우선물세트, 쇠고기, 돼지고기 등 69건 수거검사, 7건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

- 서울시는 지난 1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'한우 거짓표시' 등을 점검한 결과, 한우앞다리를 한우양지로 거짓표시 하거나, 쇠고기 이력번호를 거짓표시,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한 업소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.
-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117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, 18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「축산물 위생관리법률」과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행정처분(영업정지 및 과태료)을 의뢰했다.

- 이번 점검은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,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, 골목상권, 전통시장 내 정육점 등으로,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·자치구 공무원(26명)과 시민 명예감시원(80명)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원산지, 품종, 부위명, 등급, 이력번호, 소비기한 변조 여부, 비위생적 축산물 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.
  
- 위생점검 결과,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적발사례 18건 중 6건으로 가장 많았다.
  - 이외에도 ▲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 미표시 4건 ▲포장식육 부위명칭 거짓표시 1건 ▲축산물 포장규정 위반 행위 1건 ▲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1건 ▲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 1건 ▲거래내역서 미작성 1건 ▲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 ▲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1건 ▲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진열 1건이다.
  
- 아울러 시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, 제수용품 쇠고기 등 69건을 직접 수거,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‘안전성 검사’(한우유전자, DNA동일성, 잔류항생물질, 부패도 등)를 진행한 결과, DNA동일성 부적합 제품 7건(DNA 불일치)이 발견되어 각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.
  
-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“설날 성수기를 앞두고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.”며 “서울시는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